

韓國乳加工 協會로부터 “學校 牛乳 紿食에 對한 나의 所見”을 글로 써 달라는 原稿 請託을 받고 常識的인 論題이며 協會 發刊인 牛乳誌에서 數차례에 걸친 主題 發表가 있었고 그 內容이 같았고 本人의 所見과 비슷비슷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表現 할까 주저했었다. 先輩 校長先生님들의 所見 發表가 너무도 當然하고 옳은 말씀이기에 그 以上도 그 以下도 表現의 길을 찾기 어려워 사양하였으나 計劃된 것이니 이제 筆者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펜을 들었다.

前記

7月 初旬 學校 教職員끼리 北漢山 山行길에서 60代 前後의 元老 教師들끼리의 주고 받는 대화 중에 우리들의 遇邊 및 우리 自身들의 生活이 점점 윤택해지고 있음을 자랑하며 日帝侵略 末期의 中學校 時節의 生活 모습에 話題가 모아졌다. 한창 자라야 할 成長期에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 生活에 얼마나 苦生하며 살았나 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의 選擇의 여유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貧困의 求乞이었다. 當時 奇宿舍 生活의 食事란 비지밥, 콩갯묵밥, 수수밥이요 農村 家庭의 끼니 때우기는 쑥죽, 풀죽, 수제비죽, 솔잎죽 닥치는대로 먹고 마시며 살았다. 그 당시의 生活상을 일일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時節을 보낸 지금의 60代 前後의 우리들은 지금도 瘦은이들의 늄름하고 건강미 넘치며 거창한 體軀에 比하여 儮小함을 느낀다. 한창 成長期에充分한 營養食을 取하지 못한 탓이라 요즈음은 食生活 自體의 改善과 充分한 營養食으로 供給되는 食生活에 衛生의 生活 環境, 健康 管理에서 지금의 青少年 體軀가 形成되었다고 본다면 食生活의 改善이 얼마나 外形의 體格 形成에 重要한가를 實感한다.

서울洗劍亭國民學校
校長 安俊善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窓밖의 운동장에서 뛰고 내닫고 달리는 어린이들의 體格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균형잡혀 있으며 잘 생겼는가를 볼 수 있다. 近來에 와서 우리 나라 어린이의 體格이 매우 크고 發育 狀態가 좋아졌다는 統計가 나왔다. 몹시 반가운 일이다.

1. 學校 紿食의 重要性

成長期를 學校 生活로 보내는 青少年期에 豐富한 營養을 모든 어린이에게 供給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學校 紿食을 받는 學校의 어린이와 學校 紉食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體格, 性格, 學習의 差가 있다는 보고서를 接할 때마다 생각했던 바다.

'85年 美國에 갈 機會가 있어 이곳 저곳을 여행한 일이 있다. 그 때 워싱턴에 사는 弟子의 招請으로 夫婦 留學生 집에 들린 일이 있다. 學校 財團에서 주는 裝學金으로 근근히 工夫하는 夫婦들인데 2살 女兒와 4살 男兒의 男妹를 키우고 있었다. 그 남매의 얼굴에서 健康美와 토실토실한 살결에서 發育 狀態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留學生活에 男妹들의 養育에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 알고 보니 州政府에서 그 아이들에게 營養食을 供給해 준다는 것이다. 低所得層의 家庭의 어린이들에게 每日의 牛乳와 間食(빵, 달걀, 챙, 과자, 과일, 등등)을 1주일에 한 번씩 約束된 날짜에 배달을 해 준다는 사실이었다. 그 男妹가 充分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을……. 그 어린이가 美國市民權이 없어도 美國에居住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멕시코인이든 인도인 이든 한국인이든 관계없이 어린이들에게 鍔주림을 줄 수 없고, 영양실조에서 오는 發育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政府의 社會보장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영양식품 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牛乳는 필수이고 다른 메뉴는 바뀔 수 있다는

事實에서 牛乳야말로 東西洋 古今을 막론하고 完全食品인가 싶었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營養食을 無料 配給하는 視角이 부러웠다. 물론 美國은 富者 나라니까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으나 本人의 생각으로는 社會보장制度가 부러웠고 보다 부러운 것은 장차 나라의 主人公인 어린이들의 養育이 무엇보다 重大하다는 治者들의 視野, 그리고 그런制度를 용납하는 納稅者들의 사랑에 고개가 숙여졌다. 就學前 어린이들에게 이같이 關心을 爲하는 그들이기에 就學 아동들에게 베푸는 學校給食制를 論할 必要가 없다.

우리도 이제 地域의 區分없이, 貧富의 差없이 어린이들의 發育, 健康한 身體, 健全한 精神 培養에 보다 많은 投資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2. 學校 牛乳 紉食의 問題點과 改善策

學校 牛乳 紉食의 問題點들은 前號 牛乳誌에서 論述한 것들이 共同된 意見이라 믿는다.

첫째가 教師들의 雜務를 둘 수 있다. 牛乳 紉食業者들로서는 教師들이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教師들에게 주어진 主務는 兒童의 生活 指導, 學習 指導와 人性 지도인데 牛乳 紉食, 폐품 수집, 저축 수합, 各種 行事 指導 등등으로 눈 둘릴 틈이 없다. 初等 教員의 경우 學級 擔任을 맡고 있어 登校로 부터 下校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4, 5, 6교시를 마치고 청소를 마치고 나면 진골을 뻔 것 같은 피곤함이 온몸에 스며 든다고 한다. 牛乳 紉食의 雜務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희망 아동 조사, 代金 수합, 名單 作成, 牛乳 受領, 牛乳 配食, 紉食 指導, 뒷처리 등등에 매일 되풀이하여 신경을 쓰는 것 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마시도록 권하는 교육, 農村의 낙농업자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人間愛, 모든 것들이 엉키고 엉

커 牛乳 紿食 指導가 가벼운 일은 아니다. 校長으로서도 全國 낙농 農民을 위해서도 아니, 成長期의 어린이들의 發育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牛乳 紿食의 권유가 때로는 教師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도 같고 教師 本然의 業務外의 雜務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70年代만 하여도 牛乳 紿食 指導에 있어 學級 擔任에게도 試食用으로 牛乳 한 개 씩이 配給되었었다. 그러다 80年代에 들어 業者들의 負擔이 크다는 理由로 그 配給이 중단되었다. 業務를 代行한 勞苦에 對한 위안은 커녕 一方의 奉仕 強要是지나친 처사다. 때로는 欠席 兒童 分의 牛乳 行方 찾기, 그 牛乳의 保管, 그 모든 것들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세째, 牛乳 紿食上의 安全 管理 問題도 때때로 無理를 일으킬 수 있다. 牛乳 配達者가 때로는 날짜 지난 우유를 슬쩍 몇 개씩 바꿔치기 하는 경우 마저 있다고 하니 이럴 때 教師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속상한지 모른다. 이 또한 教師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인지.

넷째, 牛乳 代金의 収納에 있어 教師와 兒童 間의 人間 관계가 상하는 수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잃었다는 아이, 또는 친구들과 전자 오락실에서 낭비하고 거짓말하는 아이, 이로 인하여 教師, 兒童, 學父母間의 인간 관계가 금이 가는 일들이 있어 教師들이 괴로운 심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나 일일이 글로 써 남기고 싶지 않다. 先誌에서 말씀하신 校長先生님들의 所見으로도 充分히 問題點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問題點들의 改善策은 為政者나 業者들의 視野를 넓혀 보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改善이 쉽

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教師들에게 教師로서의 奉仕心에 호소하는 式의 改善이나 雜務에 對한 報答式의 改善策을 바래서는 안될 것이다. 根本적으로 牛乳 紿食이나마 全 兒童에게 供給하고 한 사람의 專擔者를 두는 길 밖에는 없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앞날을 내다 보는 눈이 하루 빨리 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結論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牛乳의 營養價, 完全 食品의 利點, 各種 記述의 正確한 統計와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마무리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結論을 지을까 한다.

未來를 指向하는 人間에게 보다 보람이 있다면 자라는 어린이들의 成長이 바람직하여야 한다는 사실만은 真理인 것 같다. 자라는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像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찌 간단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선 健康한 身體와 健全한 精神의 培養, 温厚한 心性의 도야가 基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治者나 業者나 어린이들의 올바른 成長을 돋는 視野를 넓혀 달라는 것이다. 내 아들 딸이나 우리 나라의 어린이 모두가 옳게 成長하지 못했을 때 같이 부끄러워 하고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外形的이고 展示的인 어린이들을 위한 施策에 앞서 成長을 돋는 內面的이고 實質的인 財產的인 投資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가 居住地와 貧富의 差에서 成長의 差가 나지 않도록 初等學校에서의 最大한 의 牛乳 紿食 만이라도 完全 無料 紿食制가 하루 빨리 導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